

# 협회창립 31주년을 맞으며 ...

양록업 증흥을 목표로 1973년 임의 단체로 시작해 1975년 5월 20일 사단법인 한국양록협회가 발족된 후 3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한국 양록업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양록인의 중심체로서 협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오늘의 현실은 더욱 마음을 무겁게 하는 동시에, 책임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아쉬웠던 과정들을 지금의 우리들이 올바르게 조명하고 거울로 삼는다면 반드시 밝은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임에서 위안을 갖고자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2년, 3년 후와 비교할 때 회원님들은 어느 위치에서 계시겠습니까?

매년 오유 월은, 여타 품목과는 다르게 양록인들에게는 시슴의 절각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수확의 시즌입니다. 연 중 힘든 상황과 갈수록 어려

워져가는 양록 환경일지라도 이맘때면 수확의 기쁨으로 잠시나마 미소를 지을 수 있었겠지만, 올해는 한·미 FTA로 인해 쓴 미소만이 지워집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양록업의 미래가 달라질 것임은 과거의 역사에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는 한·중FTA, 한·일FTA 그리고, 향후 뉴질랜드産 수입녹용이라는 시한폭탄을 점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미·캐나다 FTA와 미·멕시코 FTA등을 통해 미국이 얼마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협상력을 발휘했었고, 그러한 전문가들과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 기간과 노력이 필요함에도 노무현 정부는 무엇에 쫓기 듯 한·미 FTA 협상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월 초순에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공식협상이 진행됩니다. 협상과정에서 진행되는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한다고 합니다. 영화관련 문화와 농업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는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부분과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고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조업 관세율과 농업의 관세율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농업 부분의 최소한의 피해와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끄럽게도 아직도 양록 인, 단체 간 협조와 단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 후 권리를 찾아야 하지만 이를 망각한 채 권리만을 찾고자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양록 발전을 위한다는 알팍한 명분을 들먹이며 순수한 양록 인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양록인 손에 의해 수입녹용 불법유통이 자행되고, 이를 견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양록 업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양록 시장은 보장된 터전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미 세계 각국이 치밀한 준비를 끝내고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양록은 더 이상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축산폐수 규제, 도축 및 위생, 질병방역 등 모든 분야에서 보호막은 제거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정부의 정책지원 대상도 될 수 없음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양록자조활동자금 사업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이미 2004년 사업시행을 하였고, 정부예산 지원도 아직은 작지만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확보한 예산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렵다고 탓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란 말뜻을 되새기며 소탐대실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전국 1만여 양록 인과 양록 관련 연구자 및 기관, 단체, 산업 관계자 여러분. 우리의 역량을 한곳으로 결집시키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십시오. 그 힘을 양록 산업 발전에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역할은 양록 협회가 담당하겠습니다. 창립 31주년을 맞아 협회의 기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양록 인의 바람을 적극 수렴하여 양록 발전의 구심체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이에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양록협회 김수근 회장